

41 룿의 믿음

룿기 1~4장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룯과 오르바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다로 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여러 번 돌아가기를 권하자 결국 오르바는 모압의 자기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룯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룯은 먹을 것을 구하러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웠습니다.

룯은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룯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룯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과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룯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룯에게 친절을 베풀어 떡을 먹게 하고 자신의 밭에서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에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룯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암송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기 1:16)



룻의 믿음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과 오르바는 각각 어떻게 하였나요?



나는
베들레헬으로 돌아
갈터이니
너희는 너희 백성에
게로 돌아가라.

오르바

룻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기 1:16)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서리라 (요한복음 12:26)



예수님과 보아스



예수님과 보아스는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빈 칸에 적어 보세요.



-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 보아스는 가난한 룻을 도와주고 지켰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룯처럼 올바르게 선택해요



룯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린이 전도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현지야!
우리 내일 같이 모여서
놀기로 했는데 너도
올 거야?



어?
내일은 전도집회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 복음 6:33)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른 룯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알아볼까요



선택

스탈린이 소련을 다스리고 있을 때,

'보리스 콘펠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소련 정부에 체포 당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 갔습니다. 마침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만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구원을 받은 후,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용소에서는 돌봐 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그 의사는 젊은이를 돕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수용소 법을 어긴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그 의사는 자기가 수술한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처형 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까?"

이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